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사례연구*

An Ecological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ocial Adjustment of Out-of-School Youths

1차원고접수: 2023.04.27. 수정원고접수: 2023.11.27. 최종게재결정: 2023.12.13.

김영주¹ · 채수은²¹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²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수Kim, Young Ju¹Chae, Soo Eun²¹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²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발휘하는 인성역량은 무엇이며, 생태체계 내외에서의 사회적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D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청소년 5명, 부모 3명, 청소년지도사 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4개월 동안 개별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Giorgi의 의미단위 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인성역량과 관련해 228개의 주제가 도출되어 26개의 주제목록과 4개의 범주가 구성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등 내, 외적 보호 요인을 갖추어 '학교 밖'이라는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가 보고한 적응 패턴에 대해서는 73개의 주제가, 부모와 상담자가 보고한 적응 패턴에 대해서는 71개의 주제가 각각 도출되어 관련 주제목록과 범주가 형성됐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 긍정적 피드백, 다양한 기회 제공 등 외적지지 시스템과 인성역량이라는 내적지지 시스템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응, 인성역량, 적응양상, 의미단위 분석

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personality competencies out-of-school youths use for social adaptation and to understand their adaptation patterns in and out of the ecosystem. The study, conducted from May to August 2022, involve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out-of-school youths and 11 associated individuals (5 youths, 3 parents, 3 advisors) in D city. Over four months,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ividu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Giorgi's semantic uni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228 themes, forming 26 topic groups and 4 categories, related to the adolescents' personality competencies for social adaptation. These youths showed positive life acceptance, future preparedness, and internal and external protective factors aiding their crisis management and adaptation. Additionally, self-reported adaptation patterns of these adolescents yielded 73 themes, 14 topic groups, and 4 categories. Parent and advisor reports on youth adaptation patterns resulted in 71 themes, 13 topic groups, and 4 categories. The study found that these adolescents are adapting to society and maturing through experiences facilitated by external support systems (family support, positive feedback, opportunity provision) and internal character competencies, within a dynamic environment.

Keywords out-of-school youths, social adjustment, personality competency, adjustment pattern, semantic unit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

면 최근 4년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2018년 0.9%(52,539명), 2019년 1.0%(52,261명), 2020년 0.6%(32,027명), 2021년 0.8%(42,755명)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함.

Corresponding to 채수은 (Chae, Soo Eun)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수 (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mail, schae@gwn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았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밖’을 선택하는 예도 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희, 김혜미, 2020). 대표적으로 학업지속 여부에 따라 사회적응 양상이 갈린다(박혜진, 김정남, 2020). 윤철경의 연구(2018)에 따르면 자퇴 후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5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학교 역시 학교라는 공동체의 연장이라고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또래보다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 기능이 부족한 경우(김혜영, 이소희, 2002),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저하, 흥미 부족 등(신현숙, 구본용, 2002) 개인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부모, 비행수준 높은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갈등, 유해환경, 문화나 지역사회 요인(이은혜, 박화옥, 2014)도 학교중단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신과 김형태의 연구(201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지지욕구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유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조승연, 2021).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체계가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김민경, 2012). 이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집단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과정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과정 탐색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대안학교로의 재진입을 통해 사실상 사회적응보다는 학교적응의 다른 형태를 파악한 연구(박혜진, 김정남, 2020)가 있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 학

교에서와 달리 학생들이 ‘대안학교 입학 결심’이라는 자발적 학업 동기로 시작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 ‘변화에 대한 욕구’와 같은 다소 일반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둘째, 사회적응을 시간에 따른 연속적 변화로서 과정을 탐구한 경우보다는 단순 비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 2020)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일반 집단의 적응 저해 요인을 비교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을 긴 사회적응 기간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매우 단편적 정보에 그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문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중점 사안이 될 이슈를 고찰한 연구(조혜영, 2019)도 있었으나 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쟁점과 현안을 문헌 키워드로 짚을 뿐(조혜영, 2019), 사회적응 과정과 변화, 성장의 잠재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적절한 교육과 상호 작용 등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식 습득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사회적 낙인감 등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좌절하고 위축되지는 않는다.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게 하는 내적, 외적 힘은 무엇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삶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긍정적 발달로 전환 시키며 정신적 건강을 지켜내는 것일까? 본 연구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긍정적 발달로 전환하는 데 개인 심리, 특히 ‘인성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성이란 인간의 보편적 본성으로 개인의 특성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고, 환경에 자극받아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의 고유 성품이다. 일반적으로 인성의 덕목은 자존감, 정직, 존중, 성실, 신뢰, 배려, 소통, 협력, 봉사, 공

동체 등과 같이 다양하며 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해 왔다(조한일, 2006).

학교라는 제도권 환경과 결부 짓는다면 인성은 개인의 타고난 성품을 넘어 지식과 태도, 기술의 결합체인 ‘역량’으로 이해함으로써 수행과 개발 가능한 상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김영래, 2017). 따라서 인성역량은 ‘학교 밖’이라는 위기상황과 ‘사회적 낙인감’ 등 선입견의 역경을 잘 극복하고 적응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례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정서, 인지적 측면에서 인성역량을 발휘하여 적응하는 과정이 드러난 바 있다(김나영, 김광병, 2023). 그러나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에 대한 고찰은 개인 역량과 사회와의 단순한 상관을 통해 나타난 표면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때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생태학적으로 살펴 본 최근 연구(최재광, 한지현, 이유경, 송원영, 2023)를 통해 일부 포착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발휘하는 인성역량은 무엇이며, 생태체계 내외에서의 사회 적응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경험과 발달 과정을 그들이 놓인 실제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밖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인성역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양상은 어떠한가?

2-1. 청소년 자가 보고를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양상은 어떠한가?

2-2 부모 및 청소년지도사가 보고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강원도 D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 11명을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구 대상 청소년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후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천받았다. 그 후 추천받은 청소년이 또 다른 청소년을 추천하는 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추천받은 청소년 총 8명 중 3명은 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최종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부모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의 추천을 통했으며 총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 범주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 선정은 위해 연구자가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3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선정되었다. 이들은 1~7년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센터 담당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 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이며 해당되는 멤버의 사례 수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한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 중단 기간이 되도록 긴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의 경우 모두 학교 중단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 표 2,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참여자 번호를 매겼다.

표 1.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교 중단시기	특성
참여자1	여	10대 후반	고등학교 1학년	검정고시 준비, 메이크업학원 수강, 꿈드림 회화프로그램 참여 등
참여자2	여	20대 초반	고등학교 1학년	꿈드림 다수의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 통과, 대학 진학
참여자3	여	10대 후반	고등학교 1학년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 4단계, 꿈드림 다수의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참여자4	남	20대 초반	중학교 2학년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 4단계, 꿈드림 다수의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꿈드림 멘토링 참여 등
참여자5	남	10대 후반	중학교 1학년	검정고시 통과 및 대학입시 준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

표 2.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특성

부모 자신					자녀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직업	성별	연령	학교중단 시기	특성
부모1	여	50대	대졸	주부	여	20대 초반	고등학교 1학년	검정고시 통과, 꿈드림 멘토링 참여 등
부모2	여	50대	고졸	아르바이트	남	20대 초반	중학교 2학년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등
부모3	여	40대	대졸	회사원	여	10대 후반	고등학교 1학년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표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전공분야	특성	직급	주요업무
청소년지도사1	여	50대	교육학(상담심리)	7년 5개월	중간관리자(팀장)	학업중단속려제관리 및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2	남	30대	사회복지학과	2년 10개월	일반직원(팀원)	교육 및 자립지원 등
청소년지도사3	여	40대	사회복지학과	1년 5개월	일반직원(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등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해 생생한 진술을 얻고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 11명(학교 밖 청소년 5명, 부모 3명, 청소년지도사 3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세 그룹 가운데 청소년만 연구 문제 1과 2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면담은 좀 더 오랜시간,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대일 면담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담 세션 시간 수준(40 ~ 60분)을 따랐고 포커스 그룹은 여러 구성원의 집단 역동을 고려하여 그보다 1.5배 긴 90분 가량 진행되었다. 청소년 1차 면담은 인성에 대한 지식, 기술/태도에 관한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에는 적응수준, 인성인식 수준,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 개발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3명의 청소년 부모 면담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에서 40분가량 진행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 면담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60분 정도 진행하였다. 부모와 청소년지도사에게는 자녀(청소년)의 적응수준, 인성인식 수준, 필요성, 인성교육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전에 동의받은 대로 녹음한 후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드러내는 바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 체계적 의미단위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Giorgi(1985)가 제안한 의미단위 분석 과정을 따랐다. 개인의 경험에서 심리학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현상의 본질을 철저하게 기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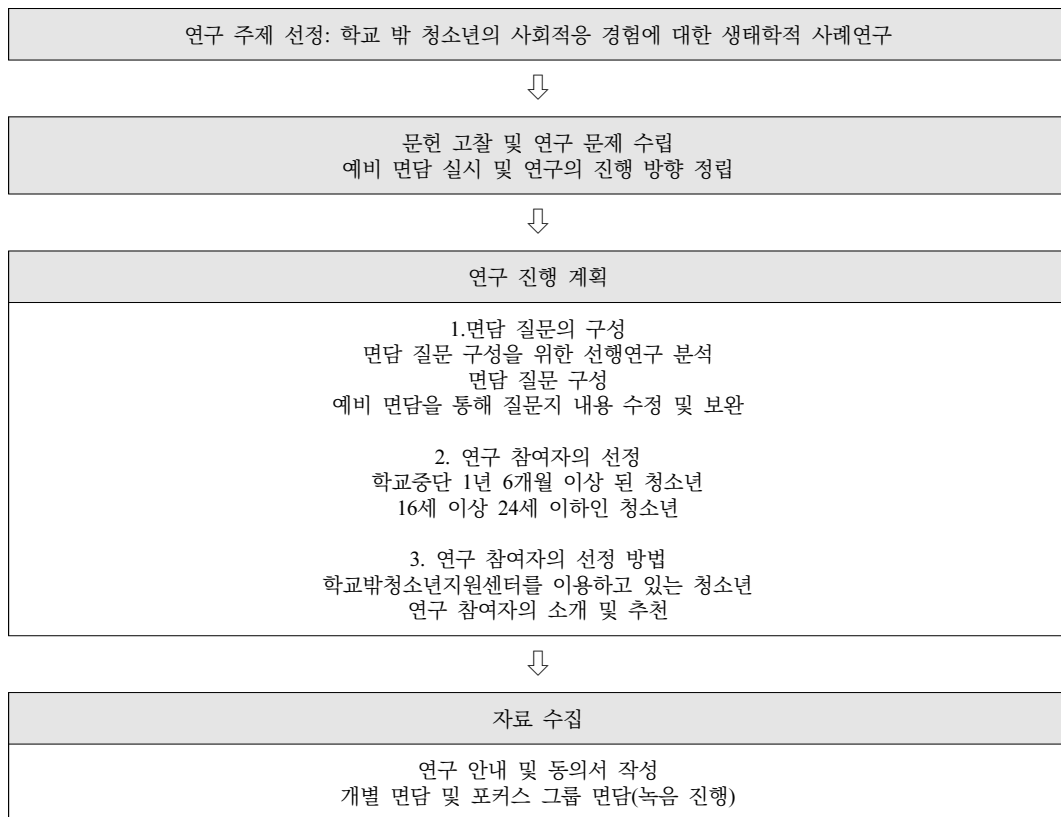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수집 절차

탐구하고자 하는, 즉 경험의 구조적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다시 기술한 후 이를 주제(의미단위), 주제묶음(하위요소), 범주(구성요소)로 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상황적 구조기술과 일반적 구조기술이 가능하다. 이후에 경험을 관통하는 본질적 주제를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내재된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 기술을 거쳐 본질적 경험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Giorgi가 제안한 분석 단계에 따라 진행된 5단계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박영순, 2019;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4. 연구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연구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평가 기준 네 가지 일관성, 사실적 가치, 적응성, 중립성을 고려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타당

도와 신뢰도는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대체되는데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참여자검토(member checking), 동료검토(peer debriefing)의 과정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부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로 다양하게 선정하였으며, 개별 면담 및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Moon, 2019; Santos, Ribeiro, Queiroga, Silva, & Ferreira, 2020). 또한 연구자의 자료, 상황 등에 따라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 자료 수집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자료 분석 시 연구자가 전사 자료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10%를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문가(연구 대상 집단 외부인)에게 의뢰하였는데 각자 코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 코딩의 평가자 간 동의율은 80.4%였다. 이후 연구자가 나머지 전사 자료를 모두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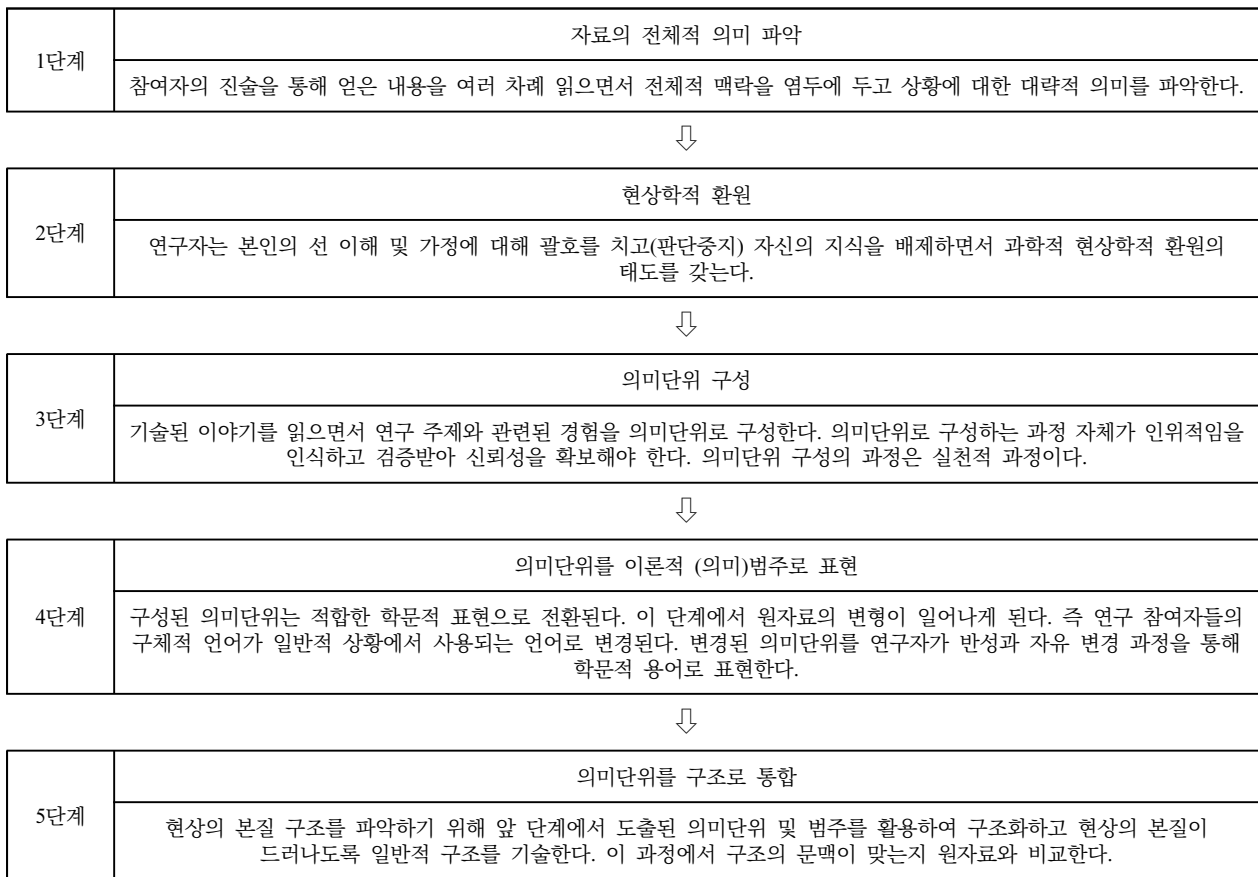


그림 2. Giorgi의 면담자료의 의미단위 분석 단계

III. 결과 및 해석

1. 학교 밖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인성역량

학교 밖 청소년의 인성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1차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목록은 내용타당도 분석에 참여한 두 명의 심리학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4개의 범주, 26개의 주제목록, 228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개념으로 문제해결 등 사례가 포착되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참여자들이 동원한 다양한 문제해결법을 ‘문제해결’ 주제로 분류하였다.

감정이 되게 빨리 발달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나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감정보다는 최대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정 뒤의 상황을 예측해서 최대한 결정을 미뤄요(참여자 3).

그밖에 자기관리 역량에 7개, 심미적 감성 역량에 7개, 공동체 역량에 6개, 의사소통 역량에 6개 하위 구인이 포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성역량 의미구조와 각 하위 구인 별 관련 사례와 빈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발휘하는 인성역량은 자기관리 역량(33.3%), 심미적 감성 역량(25.5%), 공동체 역량(22.8%), 의사소통 역량(18.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응을 위해 자기관리 역량을 가장 많이 발휘하며, 의사소통 역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인성역량 의미구조와 빈도

No.	주제묶음	빈도	사례	범주
1	문제해결	20	상황에 따라서 심각하다 싶으면 제가 이걸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관리 역량
2	자기조절	7	아침을 잘 시작해야만 하루가 더 좋을 것 같아서	
3	자기결정	8	계획했던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면 해요	
4	자기동기화	15	한 단계씩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새로운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5	자기이해	10	인간관계 때문에 슬플 때도 있는데 조금만 마음만 없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6	자기점검	8	성찰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7	자기존중	8	나를 위해 조금 인정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8	경험의 가치 인정	8	사실 사람마다 이게 해결책이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심미 적 감성 역량
9	긍정측면 초점화	10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10	성장하고 있는 자기 인식	7	내 의견을 이렇게 제시 하고 계속 주장 하는 것도 뭔가 가능해진 것 같고	
11	스트레스 대처	8	소셜을 본다든가 그러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12	자기정서 인식	13	뭔가 포기해버리고 싶다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13	자기통제 및 절제	6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내 의견이 맞아 이랬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객관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14	자기한계 인식	6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15	관계형성	11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 관계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동 체 역량
16	기본예절	9	먼저 인사부터 하고 바르고 고운 말 쓰는 거	
17	도덕적 판단	4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됐을 때는 국민으로서 신고하는 게 맞아요.	
18	도움제공	8	길이 많이 있다는 걸 어른들이 발견해 준 것 같아요	
19	충고/설득	6	일단 경고를 해야겠죠	
20	타인이해	14	내 의견과 확실히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주고	
21	다른 의견에 대한 개방성	7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의사 소통 역량
22	도움요청	8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23	의사표현	9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24	적극적 상호 작용	9	제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상대방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25	주의 깊게 듣기	4	일단은 듣는 것부터 일단은 듣자	
26	타인감정 인식	5	애가 나한테 빠진 것 같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2.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양상

1) 학교 밖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적응양상

연구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경험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그 의미구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경험 내용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7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14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2) 부모와 청소년지도사가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양상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지도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경험에 대해 그 의미구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경험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7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13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하기 전,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견디기 힘든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내적지지 시스템(인성역량)을 발휘하고 외적지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즉 내적지지 시스템(인성역량)과 외적지지 시스템의 상호 작용이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경험의 의미구조

No.	주제목음	빈도	사례	범주
1	상처	5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당하는	부정적 생활경험
2	현실과 마주함	5	학교라는 울타리 밖을 나오니까	
3	가족의 지지	6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것	
4	소속감	2	학교랑 비슷한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적 지지 시스템
5	다양한 기회제공	2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는 데	
6	긍정적 피드백	6	그분들이 진짜 잘 알려주세요	
7	안전한 환경제공	2	센터로 바로 뛰어갔어요	내적 지지 시스템
8	자기성찰	6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9	목표를 향해 나아감	10	메이크업 준비도 하고	
10	자기도주성 회복	5	내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성장
11	적극적인 행동	4	일단 꺼내놓고 해결하자	
12	모델링	5	엄마한테 배운 게 딱 하나 그거예요	
13	이타성	3	이 친구와 함께 있어 주는 게 이게 더 낫다	성장
14	회복탄력성	12	불안했던 감정이 편안해지는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표 6. 부모와 청소년지도사가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경험의 의미구조

No.	주제목음	빈도	사례	범주
1	상처	2	아빠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가	부정적 생활 경험
2	현실과 마주함	3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중학교 졸업한 상태로 멈춰있는 것 같은	
3	가족의 지지	7	어머님이 그때 재미있다고 말한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4	소속감	7	가장 큰 변화라면 관계의 좋음이라고 해야 되나	외적 지지 시스템
5	다양한 기회제공	6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6	긍정적 피드백	15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특히 상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7	안전한 환경제공	6	센터라는 곳이 이제 막연한 곳이 아니고 왔을 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	내적 지지 시스템
8	자기성찰	2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알아 가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9	목표를 향해 나아감	5	증장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열심히 했고	
10	자기도주성 회복	3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성장
11	적극적인 행동	10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도 먼저 해요	
12	이타성	2	언니의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13	회복탄력성	3	해가 거듭될수록 마음의 여유를 찾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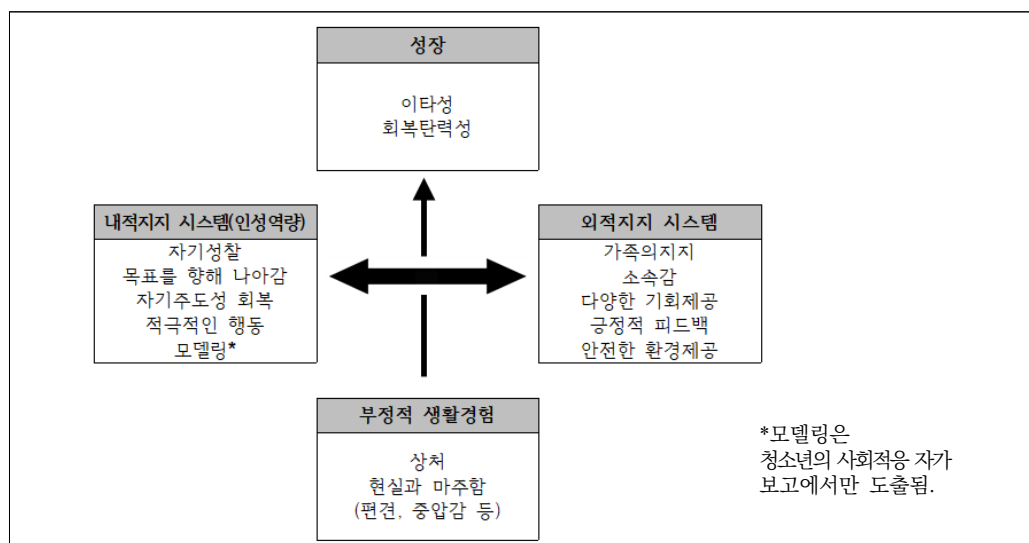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과정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적응을 위해 그들의 실제 삶에서 발휘하는 인성역량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긍정적 발달로 전환 시키는 요인으로 인성역량이 경험적 적합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 내외에서의 사회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적응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성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을 환경과 개인의 복합 구조 속에서 생태학적 결과물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인성역량에 포함되는 긍정적 인식, 대인관계 능력, 욕구와 충동에 대한 대처 능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문제 간의 연관성은 선행 연구(신현숙, 구본용, 2002; 조승연, 2021)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재차 이러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파악한 인성역량의 범주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자기관리, 심미적 감성, 공동체, 의사소통 네 개 역량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발휘한다고 보고한 역량의 의미단위의 구성비율은 자기관리 역량(33.3%), 심미적 감성 역량(25.5%), 공동체 역량(22.8%), 의사소통 역량(18.4%)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 역량은 76개의 의미단위로 전체 의미단위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 연구(박혜진, 김정남, 2020)에서 지적한 학업지속 여부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성공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학교에 계속 소속이란 성적이나 출석 관리 등이 정상적으로 된 상태로서 자기관리 역량 표출이다.

본 연구에서 두드러졌던 다른 인성역량 축에 심미적

감성 역량(58개의 의미단위)과 공동체 역량(52개의 의미단위)이 포함된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공감적 이해 및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내재화하여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자기정서 인식과 같은 메타인지적 요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는 약간 다르나 비슷한 맥락의 인성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밖에 의사소통 역량 역시 사회 적응에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42개의 의미단위가 본 연구 대상들의 면담 분석에서 포착되었으며 이는 전체 의미단위의 18.4%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역량은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심미적 감성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과 중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역량이다. 이는 가족 유대관계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어지는 간접 영향의 관계임을 지적하였던 조승연의 연구(2021)와 관련지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밝힌 학교 밖 청소년의 언어로 표현된 인성역량은 주로 심미적 감성, 공동체, 의사소통과 같은 타인 관계적 측면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지지욕구와 같이 자아중심적 심리구인이 사회 적응에 결정요인이라고 본 선행 연구(신현숙, 구본용, 2002)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견해에서 인성역량에는 개인 내부의 능력보다는 사회적 관계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지도사의 시각에서 본 사회 적응 성공 경험의 의미구조에는 내적지지 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성역량과 가족의 지지와 같은 외적지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적 생활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였다. 이러한 경로는 가족지지에서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이어지는 등 간접 영향 관계를 지적한 조승연의 연구(2021)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사회적응 과정 모형에 따르면 내적지지 시스템과 외적지지 시스템은 병렬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연구결과(김성아, 2012)와는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내적지지 시스템, 외적지지 시스템 등 개념은 Bronfenbrenner의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유사하여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지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적지지 시스템(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 이웃 등이었다. Bronfenbrenner(1979)는 미시체계는 청소년들이 일상을 이끌어 가는 매일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써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한다고 하였다. 미시체계는 양방향, 즉 상호 대면적, 지속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가족의 지지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의 긍정적 피드백은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진로 의식이 확장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청소년은 시간에 따라 발달해 가면서 환경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정서 적응과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내적지지 시스템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은 인성역량을 발휘하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긍정적 발달로 전환시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이 범주에서 <모델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적응양상에서만 도출된 주제이다. 이 현상은 보호자 자신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기체인 청소년과 가장 인접한 미시체계인 부모(보호자)와의 경

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모(보호자)는 청소년들의 인성역량 함양에 대해 지시적 의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인성역량은 직접 보고 느끼고 관계를 통해 경험할 때 학습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만약 청소년 인성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년 자신에 대한 성찰, 목표 설정, 동기화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의미 있는 성인과의 만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이 보고한 사회적응 경험의 미구조에는 ‘성장’의 빈도가 가장 많은 반면, 부모와 청소년 지도사의 의미구조에서는 ‘외적지지 체계’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 각각이 속해 있는 체계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사회적응 현상의 다양한 범주 가운데 청소년 자신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부모와 지도사들은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성원 각각 자신이 처한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체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의도적으로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청소년에게 부모나 지도사들로부터의 지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반대로 부모나 지도사들에게 청소년 내면의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는 부모의 갈등과 이혼, 따돌림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는 현실을 마주하며 중압감과 사회적 낙인 등 부정적 생활경험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상처는 가족의 지지, 긍정적 피드백, 다양한 기회 제공 등 외적지지 시스템의 도움과 내적지지 시스템인 인성역량이 상호 작용하여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며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고 있었다.

미시체계 내에서 청소년과 부모, 친구, 교사 간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작용이 이루어진다. 중간체계는 다양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 관계, 즉 환경과의 관계를 말하며 삶의 특정 시점에서 연결하여 영향을 미친다. 생태

학적 접근에 의하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발달의 역동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상호(相互) 호혜성(互惠性)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의 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성역량 인식을 파악하고 청소년, 보호자가 인지하는 사회 적응 발달 모형을 종합하여 생태학적 맥락에서 해석해 보았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질적 연구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말미암아 소수의 참여자 정보를 활용하였고,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출된 주제 이외에도 다른 본질적 경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직접 경험이 있고 연구 문제에 대하여 합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해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는 것과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경험한 바를 표현하는 것이 서툰 일도 있어서 참여자 선정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충분한 정보 수집에 제한이 있어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략적인 경험구조는 파악했을지라도 한정된 기간 및 면담 시간으로 인해 각 경험구조에 해당하는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표집 지역의 범위와 폭을 고려하여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가 선행연구 때문에 뒷받침되는 부분이 미비하여서 경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보완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신, 김형태 (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회와 사회복지*, 15, 45-84.
- 김나영, 김광병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학업중단 이후 지역사회 내 적응과정: 사회적 자원과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6, 5-38. <https://doi.org/10.22589/kaocm.2023.46.5>
- 김민경 (2012).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1), 19-36.
- 김성아 (2012). 작용-개인-맥락-시간 모델의 관점에서 본 초기청소년의 환경체계들과의 인지된 관계와 진로성숙도. *한국아동복지학*, 38, 7-37.
- 김영래 (2017).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SEL).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2), 31-53.
- 김혜영, 이소희 (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1), 23-40.
- 박영순 (2019).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진, 김정남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미인가 기숙형 대안학교 적응과정 연구. *동서정신과학*, 23(1), 73-90.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철경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혜, 박화옥 (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399-426.
- 전주희, 김혜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8(1), 293-313. <https://doi.org/10.35151/kyci.2020.28.1.013>
-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다문화*

- 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 연구*, 36, 187-214.
<https://doi.org/10.15400/mccs.2021.04.36.187>
- 조한일 (2006).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자기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 향상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485-498.
<https://doi.org/10.22143/HSS21.10.2.35>
- 최재광, 한지현, 이유경, 송원영 (2023). 도농복합지역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발달지원연구*, 12(1), 21-50.
<https://doi.org/10.22839/adp.2023.12.1.21>
- 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궤적과 성인초기 적응 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37-52.
<https://doi.org/10.35574/KJDP.2020.3.33.1.37>
- 한국교육개발원. (2022. 9. 1).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https://kess.kedi.re.kr>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Santos, K. D. S., Ribeiro, M. C., Queiroga, D. E. U. D., Silva, I. A. P. D., & Ferreira, S. M. S. (2020). The use of multiple triangulations as a validation strategy in a qualitative study. *Ciencia & Saude Coletiva*, 25(2), 655-664.
<https://doi.org/10.1590/1413-81232020252.12302018>
- Moon, M. D. (2019). Triangulation: A method to increase validity, reliability, and legitimation in clinical research.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45(1), 103-105.
<https://doi.org/10.1016/j.jen.2018.11.004>